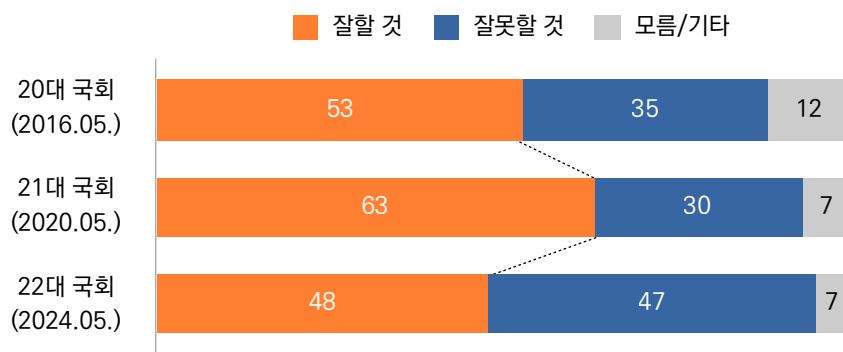




[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] 22대 국회 역할 수행, 21대보다 어렵게 전망!

- 지난 5월 30일 새로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. 하지만 시작부터 원(院) 구성 관련 여야 간 정면충돌로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다.
-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떠할까?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00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을 물었다(한국갤럽). 그 결과, '잘할 것' 48%, '잘못할 것' 45%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.
- 직전인 21대(2020년)와 20대(2016년)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했던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21대 국회 개원 직전 조사(2020년)에서는 '잘할 것' 63%, 20대 국회(2016년)는 '잘할 것' 53%였다.

[그림] 국회 역할 수행 전망 (20~22대 유권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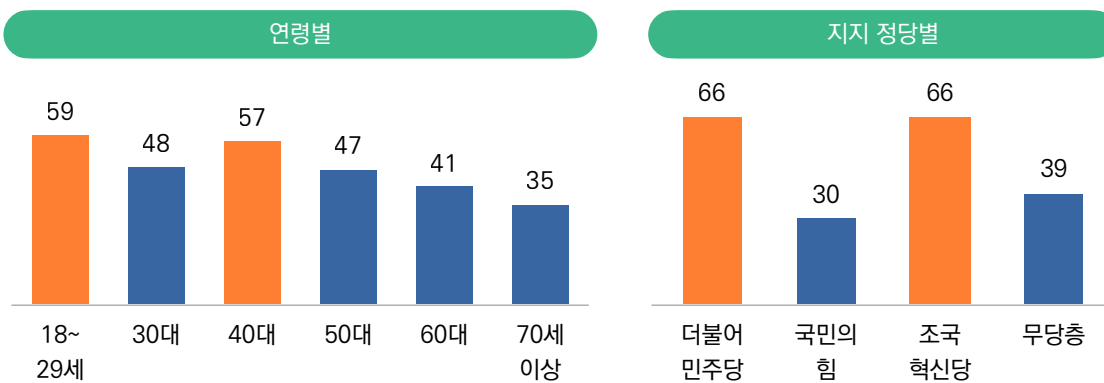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: 갤럽리포트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585호 - 정당별 호감도, 22대 국회 전망', 2024.05.30. (전국 만 18세 이상 1,001명, 전화조사, 2024.05.28.~05.30.)

22대 국회 향한 기대, 20대와 40대 가장 높아!

- 22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('잘할 것' 응답률)은 20대(59%)와 40대(57%)가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, 지지 정당별로는 '더불어민주당'(66%)과 '조국혁신당'(66%) 등 야당 지지자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22대 국회 역할 수행 '잘할 것' 비율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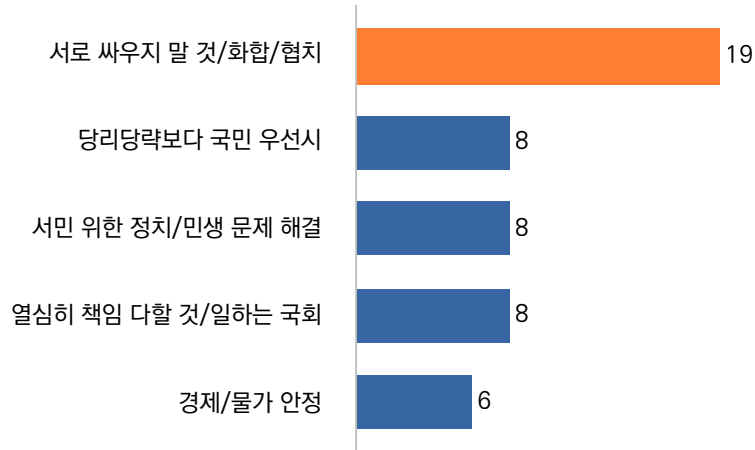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: 갤럽리포트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585호 - 정당별 호감도, 22대 국회 전망', 2024.05.30. (전국 만 18세 이상 1,001명, 전화조사, 2024.05.28.~05.30.)

22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, ‘서로 싸우지 말 것!’

- 국민(유권자)들이 22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로는 ‘서로 싸우지 말 것/화합/협치’(19%)를 주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, 이어 ‘당리당락보다는 국민 우선시’, ‘서민 위한 정치/민생 문제 해결’, ‘열심히 책임 다할 것/일하는 국회’가 각각 8%, 경제/물가 안정 6% 등의 순이었다. 이점은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싸움으로 일관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.

[그림] 22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 (유권자, 자유응답, 상위 5위, %)



※출처: 갤럽리포트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585호 - 정당별 호감도, 22대 국회 전망', 2024.05.30. (전국 만 18세 이상 1,001명, 전화조사, 2024.05.28. ~05.30.)